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9

영원한 것은 없음을 알라

[원문]
산당정야좌무언(山堂靜夜坐無言)
적적요요본자연(寂寂寥寥本自然)
하사서풍동림야(何事西風動林野)
일성한안려장천(一聲寒雁唳長天)
허공가량풍가계(虛空可量風可繫)
무능설진불공덕(無能說盡佛功德)
–동학사 길상암

[번역]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았으니
적요로움 가득 본연의 세계인데
무슨 일로 서풍이 불어 숲을 흔들며
장천에 기러기 끼득끼득 이 무슨 소식인가
허공도 가히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맬 수 있으나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
은 다 말할 수 없네.

[선해(禪解)]
봄날 산창(山窓)을 열면, 코끝을 적셔주는 깊디깊은 꽃향기에 그만 눈을 질끈 감는다. 봄소식이 나의 잠든 감관의 문을 깨운 것이다.

산사에는 소리가 많다. 풍경소리, 범종소리, 목어소리, 법고소리, 목탁 소리, 경(經)읽는 소리, 염불소리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짐승 우는 소리도 있다. 이 소리들은 저들끼리 살을 맞대어 산사 특유의 적요(寂寥)소리를 이끌어 낸다. 마침내 소리가 소리끼리 뭉쳐 적막한 고요를 풀어놓는 것이다. 여기에 고요소리 하나를 더한다면 바람에 꽃 피는 소리와 꽃 지는 소리이다.

쏴아, 쏴아–

나뭇가지를 흔들고, 구름을 흔들고, 장천을 흔들고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모든 소리의 근원이다. 그 바람이 모든 산사의 풍경들을 흔들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고 풍경을 빚어낸다. 그래서 산사는 더욱 고요하고 적막하다.

이쯤이면 나는 어느 새 깊은 묵상(默想)에 빠져든다. 자연이 그러하듯 인간의 삶 또한 그와 같이 절묘하다. 이 지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오듯 인간의 삶에도 사계(四季)는 어김없이 돌아온다. 그것이 인생이며 삶임을 느꼈을 때 나는 칠십 인생을 훨쩍 뛰어 넘었다. 그런데 성불의 길은 아직도 아련하게 멀다.

일찍이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 주석하셨던 경봉 큰 스님은 인생을 두고 '허공에 한 점 점을 찍는 것'이라고 했다. 허공에 찍은 점은 흔적이 없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인간은 이 무상(無常)의 세월을 흘러 보내면서도 끊임없는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말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동학사 길상암이다. 동학사는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는 곳으로 한국불교의 비구니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초 창건은 신라시대 때 상원 조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가 입적한 후, 신라 33대 성덕왕 724년, 상원 조사 제자 회의 화상이 쌍탑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하여 절 이름을 청량사라 하였는데 태조 19년 병신 (936년)에 신라가 망하자 신라의 유신이었던 유차달이 이 절에 와서 신라의 시조와 신라의 충신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동계사(東鷄祠)를 짓고 절을 확장한 뒤, 절 이름을 지금의 동학사로 지었다고 한다. 절의 동쪽에 학 모양의 바위가 있으므로 동학사라고 했으며, 고려의 충신이자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종인 정몽주를 이 절에 제향했으므로 동학사라는 설도 있다.

1814년, 금봉 월인 스님이 길상암을 짓고 절을 중건하여 절 이름을 개칭하되 '진인출어동방(眞人出於東方)'이라 하여 '동(東)'자를 따고 '사판국청학귀소형(寺版局靑鶴歸巢形)'이라 하여 '학(鶴)'자를 따서 동학사라 명명했다는 설도 있다. 그 뒤 만화 스님의 제자인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강의를 열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 한국의 선풍을 드날렸지만 한국전쟁으로 절의 건물이 전부 불타 없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많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동학사로 중건되었다.

산내암자로는 현재는 관음암 · 길상암 · 문수암 · 미타암 · 귀명암 · 상원암 등이 있는데 옛날에는 동전(東殿)으로 이름하였으나 현재는 길상암으로 불리는 산내암자이다. 1975년 법전 스님이 현재 법당을 신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았으니/ 적요로움 가득 본연의 세계인데'

계룡산 길상암의 주련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아름답고 매끈한 선시(禪詩)같다. 이 속에는 깊은 불연(佛緣)의 세계가 가득 깃들어 있다. 참으로 절묘하다.

스님들의 하루는 그저 산당에 앉아 경을 읽으나 염불 소리를 꿰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 입문한 스님들의 본연(本然)의 자세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시비도 있을 수 없다.

부처님 설법 자연 속에서 빛나는 공덕 무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사는 노력을

'무슨 일로 서풍은 불어 숲을 흔들고 장천에 기러기 끼득 끼득 이 무슨 소식인가?'

그런데 적막한 산당에 때 아닌 서풍이 숲을 흔들어 놀란 기러기가 끼득 끼득 울고 간다. 이 속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인 연기(緣起)법이 숨겨져 있다. 바람이 불어 숲을 흔들어 그 속에 숨어 있던 기러기가 놀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치.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아니겠는가.

'허공도 가히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맬 수 있으나/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한량없이 빛나고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깊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래,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는 무상하지만 상주불변하는 존재 또한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인간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위대한 전언은 오늘날까지도 영원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삶의 이치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착하게 살고자 하나 때로는 악해져야 하는 일도 수없이 많다. 이럴수록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 처럼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상암 주련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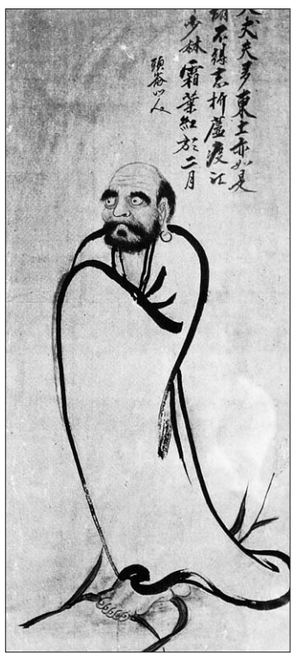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9

선지식을 찾아가 물어라

[원문]
若自己不明了 須參善知識 了却生死根本 若不見性 卽不名善知識 若不如此 縱說得十二部經 亦不免生死輪廻三界受苦 無出期時 昔有善星比丘 誦得十二經部 猶自不免輪廻 緣爲不見性.

만약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겠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오랜 세월동안 나고 죽은 그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니 설사 12부 경을 설한다 하더라도 생사(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느라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옛날에 선성이라는 이가 12부 경을 모두 외웠지만 여전히 윤회를 면하지 못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초의 선사 作 달마도(칠불사 소장).

[해설]
선지식(善知識)이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선지식을 찾아가야 하겠지요.

본래의 '나'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마음이 머무는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마음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지, 몸은 참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육신이 아니고 마음이 진짜 나다'라고 믿는 것이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 했습니다. 진짜 나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본래 마음자리를 '나'라고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보면 이 우주 역시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문밖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마음자리에서 본다고 하면, 이 벽도 걸림이 없어요. 마음에서 보면 이 벽 또한 물질이 아닙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경계가 끊어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나'라고 했을 때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 보면 이 우주가 다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즉 성품을 보는 것은 선지식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통해 업을 녹이고 맑힐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본래 자리를 알지 못하겠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오랜 세월동안 윤회한 그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니, 설사 12부 경을 설한다 하더라도 생사(나고 죽음이 끊임 없는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느라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12부 경은 바로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경을 말합니다.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생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된 그 소식을 알고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경을 보면 아무 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을 하고 <천수경>과 <금강경>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달마 스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큰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염불할 때도 염불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번뇌의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자리가 본래자리이고 부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경을 보고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고 화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선성(善性)이라는 이가 12부 경을 모두 외웠지만 여전히 윤회를 면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선성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하실 때 아들이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총명했는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을 모두 외울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홀로 선정에 들면 사선정(四禪定)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경지까지 갔던 분이 도반을 잘못 만나서 다시 '법도 없고 부처님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12부 경을 모두 외우고 사선정까지 들었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겁니다. 성품을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도 없다는 말을 하게 되고, 부처님도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된 겁니다.

경은 달을 가리킨 손가락입니다. 달을 보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이니, 달마 스님께서 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 하신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경이라도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 먼저 성품을 보는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봉 수재화고무신코 만 행 화 축
사부대중 선 물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동 깔창
지압동 깔창
쪼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망자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역학 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1달만 공부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을 전수합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 기간 : 1개월 완성
● 문의 : 효타암 051)524-9406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